

제14회 정지용문학상 수상작품집

짧은 시, 긴 탄식

박장길
저

연변인민출판사

| 제14회 정지용문학상 수상작품집 |

짧은 시, 긴 탄식

박장길 저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金仁德

责任校对：金海燕

技术设计：郑善淑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短诗 长叹：朝鲜文 / 朴长吉著. —延吉：延边人民出版社，2010. 6

ISBN 978-7-5449-1202-0

I. ①短… II. ①朴… III. ①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IV. ①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123944号

短诗 长叹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5.625 字数：144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1202-0（民文）

版次：2010年7月第1版

2010年7月第1次印刷

印数：1-600册

定价：18.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말

시인은 자신의 왕이다

허룡석

(연변작가협회 주석, 정지용문학상운영위원회 회장)

공평, 공정을 기한 심사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제14회 정지용문학상 응모작품집 평의가 지난 5월초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평의결과 증견시인 박장길의 응모작품집 《짧은 시, 긴 탄식》이 제14회 정지용문학상에 입선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나는 정지용문학상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장길시인에게 뜨거운 축하를 드린다.

한국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의 후원으로 중국조선족문단에서 정지용문학상 응모를 펼친지도 어언 14년 세월이 흘렀다. 달도 차면 이지러지고 바위도 세월에

무지러진다지만 정지용문학상 응모에 대한 시인들의 집념과 열성만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색 바래지 않고있다. 문학이 저조기를 맞고있는 시점에서 이는 기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전국 각지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7부의 시작품이 이번 응모에 참가했다는것만 보아도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응모에 내놓은 시작품들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는것이 심사위원들의 한결같은 평가였다. 응모에 참가한 시인들가운데는 다년간 시창작에 종사해온 문단에서 인정받는 중견시인들이 여러명 있는가 하면 발랄한 신인시인들도 더러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살아가고있는 삶의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특징적인 시각으로 그 생활속에서 반짝이는 시적주제들을 찾아내어 다양한 표현수법으로 사회적문제를 투시하고 변화하고있는 민족적 아픔과 정서를 잘 보여주고 제재가 다양하고 풍격이 독창적이며 민족성이 강한것이다.

시인의 사명은 시대의 숨결과 맥박을 여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공통점이다. 하지만 시대적숨결과 맥박이란 결코 이야기정절도 아니요, 인물형상에 대한 수렵도 아니며 생활현장의 재현은 더구나 아니다. 시는 걱정과 상상의 공간에서 의상을 건져내어 언어로 의상을 묘사함으로써 사람을

감동시킬수 있는 예술적경지를 이루는것이다.

시가 시대의 숨결과 맥박을 반영하려면 선명하고 생동하며 감동적이어야 하지 추상적인 정치적개념이 여서는 안되는것이다. 시대적숨결을 반영하려면 시인은 끊임없이 삶의 현장을 투시하고 새로운것을 발견하고 새로운것을 건져내여 독창적인 자신의 창작풍격을 형성하여야 한다.

시인은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자신의 왕인것만은 틀림없다. 또한 시인은 자신의 태양이기도 하다. 하기에 시인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신만의 개성으로 시대를 반영하는 훌륭한 시편을 써내려고 노력하고있다. 만일 어느 시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의 별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시인이 되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삶의 현장에 튼튼히 뿌리를 내린 시인들의 작품도 날따라 성숙되어가고있다. 성숙한 종자는 건실한 싹을 틔운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정지용문학상에 입선되는 새로운 응모작들은 해마다 보다 성숙되고 차원이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금융위기와 기타 여러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드팀없이 이 문학상을 후원해주고있는 한국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에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다.

2010년 6월 18일

차 례

제1부 손목시계

손퐁금 • 3

붉은 봉황 • 4

담배 • 5

저쪽 하늘안은 • 6

손목시계 • 7

술맹세를 마셔버리고 • 8

동방명주 • 9

이발을 해놓고 • 10

두발로 정강산을 읽는다 • 11

빠스, 사과를 한다 • 12

세월조각가 • 13

네바곤 세월렬차 • 14

화북고속도로에서 • 16

아침(1) • 17

아침(2) • 18

가로수 • 19

첫눈 • 20

- 사부곡(思父曲) • 21
- 넋기와집 • 23
- 아버지의 피진 눈 • 24

제2부 버드나무를 보면 간지러워진다

- 등근 꿈 • 27
- 동굴 • 28
- 돌올타리 • 29
- 강냉이 • 30
- 갈매기 • 32
- 자화상 • 33
- 백양나무 • 34
- 버드나무를 보면 간지러워진다 • 35
- 콩나물 • 36
- 참치눈물술 • 37
- 부정 • 39
- 죽은 땅 • 40
- 모닥불 • 41
- 호수가에서 • 42
- 벽시계 망치질한다 • 44
- 만월의 밤 • 45
- 고독 • 46

돌멩이 • 47

춤 • 48

시혼 • 49

제3부 토끼여, 굴옆의 풀을 랑비하지 말라

동그라미세상 • 53

종소리를 입으며 • 55

머리 숙인 수도꼭지에게 허리 굽힌다 • 56

사색의 파편 • 57

돈 • 57

석양 • 57

어부 • 57

함박꽃 • 58

님 • 58

물과 불 • 59

해변의 꽃 • 60

바다 • 61

산정 • 62

원샷, 너와의 키스를 그만둔다 • 63

원샷, 꿈을 까는 등우리 • 65

도시에 이사온 나무 • 66

욕심 • 67

짧은 시, 긴 탄식 • 68

- 우물 • 69
- 샘물 • 71
- 시내가 흰 돌우에 앉아 • 72
- 토끼여, 굴옆의 풀을 랑비하지 말라 • 74
- 언덕길 • 76
- 무제 • 78
- 붕어 • 79
- 코신 • 80
- 구슬 • 81

제4부 우리의 나무는 어디로 갔는가

- 우담화 • 85
- 별바라기 • 86
- 폭포머리 • 87
- 단동 가는 길 • 88
- 봄알이 • 90
- 둘배 • 92
- 제비 • 93
- 얼음꽃 • 94
- 콩꽃 • 95
- 우리의 나무는 어디로 갔는가 • 97
- 고목 • 99

- 겨울나무 • 101
- 솔 • 102
- 해 저문 솔숲 • 104
- 눈송이 • 105
- 아래물 • 106
- 안해의 흰머리칼 뽑으며 • 108
- 새벽비 • 110
- 빈집 • 111
- 아홉 고개(시초) • 112
 - 이 감방 저 밖에 • 112
 - 바보가 되고싶다 • 113
 - 가슴을 뚫어 창문을 내고싶다 • 114
 - 아홉 고개 • 115

제5부 비방울꽃 피는 두만강

- 개 • 119
- 개바자 • 120
- 화로불 • 121
- 뜨개 뜨는 어머니 • 122
- 매돌 • 124
- 할머니 • 126
- 거부기 • 128
- 양걸춤 • 129

그들은 죽어서 리혼했네 • 130
 맨발로 백사장을 걸으며 • 132
 바다의 시 • 135
 아침바다 • 138
 가을 시내물 • 139
 흐르는 물 • 140
 비방울꽃 피는 두만강 • 141
 우박 • 142
 호수 • 143
 잉어떼 • 144
 별밤 • 146
 바위에 앉아서 • 148
 황소(서정서사시) • 149

심사평:

제14회 정지용문학상 수상작품집 심사평
 /장정일 • 162

수상소감:

해를 담는 그릇 • 166



제1부 손목시계

손퐁금

접혀있는 손퐁금이여
주름 펴고 차있는 그 소리 울려라
새바람 잡아 가슴 가득 채워
깊은 호흡으로 울려라
주름 잡힌 가슴에 접어넣은 사색
활짝 펴고 태양을 안고 타면
하얀 소리 울려나와
무대는 다시 열리고
해와 달의 조명아래
나래쳐 열광할 백이십 빼스
접혀져있는 손퐁금이여
가슴을 열어 세월이 데려간
화려하던 한때를 털어버리고
신생을 타며 한껏 울려라

붉은 봉황

—중국시가창작기지 우등불야회에서

어둠을 휘저으며
너울너울
붉은 봉황이 날아오른다
나래치는 붉은 봉황을 환호하며
환희에 불타는 붉은 정열들
룡트림하는 붉은 봉황에게
날개를 달아주며
심장이 끓어올라
밤하늘 흔드는 노래소리
노래소리 따라
활—활 춤추며
어둠을 휘감는 붉은 봉황
붉은 봉황의 손을 잡고
별하늘 날으는 진붉은 랑만들
해불마냥
가슴에 불을 질러
가슴에 불이 달려
타오르는 붉은 봉황무리—
끝없이 날개는 커진다

담배

나의 사색을
반짝이는 님이여
조용히 타며 사는 멋
깊이 스며드는 맛
세상을 빨아서
허공에 날리는 허무
다 털어버리고
하루를 끈다